

정부와 불교계의 갈등이 깊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 위는 동국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왼쪽)과 4대강유역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국민행동' 회원들. 큰 사진은 6·10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스님들. 박재완 기자

불교계·정부 깊어가는 갈등의 골

공원법 '개악' · 종교편향 여전... 시국선언·천막농성·결의대회 등 '강경'

2008년 8월, 서울광장에 모인 20만 불자들의 함성은 이명박 대통령의 헌법준수와 종교차별 종식을 촉구한 야단법석이었다. 범불교대회회가 열린 1년 여가 흘렀지만 종교편향의 망령들이 사회 곳곳에서 저지르는 불교편향은 그칠 줄 모른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공안정국의 분수령을 이뤘다. '반민주적 공안정국' '1980년대로 돌아간 청와대 시계바늘' 등 정부의 뼈대어린 대거를 비판하는 표현은 어디서든 쉽게 만날 수 있다.

#교계 내의 시국선언

안하무인적인 정부의 일방통행은 대불교 정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국의 명승 가람이 대운하 속에 묻힐지 모를 한반도대운하사업은 '4대강유역정비사업'으로 이름만 바뀌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립공원법과 자연공원법은 성보문화재는 안중에도 없이 환경생태와 개발 논리로 삼보장재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 자행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의도적인 '불교 죽이기'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조계종 강경대응

4일 조계종 총무원장 장관 스님은 이명박 대통령 초청 종교지도자 오

찬감담회에 불참했다. 총무원장 스님의 불참은 이례적인 조치로 조계종의 대정부 강경노선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

교계 안팎에서는 자연공원법 개정 등과 관련해 종단의 수백명 이상의 정부에 대한 항의표시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조계종의 강경한 대정부 입장은 7월 2일 양산 통도사에서 개최될 전국교구본말사주지결의대회에서도 집적된다.

#천막농성 등 실천행 잇따라

국립공원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장지현)를 비롯해 교구본사 사회국장스님 워크샵 등을 통해 종단적 의견수렴과 역량결집에 나선 조계종은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를 정점으로 정부에 국립공원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6월 9일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 등이 속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서울 조계사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정부의 4대강 유역 정비사업은 한반도대운하사업이 이름만 바꾼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에 앞선 3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세영·손안식)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교편향위원회는 종교편향적 발언과 행동을 한 박승욱 인천중구청장의 사과와 전 용태 안산시 민원추진관의 임용 취소를 주장했다.

거듭된 종교편향에 종교평화위원회와 범불교대회추진위 등은 전국적인 종교차별 교육과 MB정부 종교차별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등 국민인식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혁신적 변혁만이 공생의 길

불교계 행보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뒤늦게 불심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개원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나 합천 해인사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이달근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예다.

불교계와 이명박 정부의 긴장관계가 지난 해와 같은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지, 안정적인 화합의 길로 들어설지의 여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조동섭·노덕현 기자

법구경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이 세상 끝까지 간다.

현대불교 @ 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택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www.buddhabook.co.kr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문의 02)722-1850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 011-336-4665
대안불교조계종 천년교포 소백산 용문사

얼대과일 푸리아 전문
보이차, 각종 차음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자살? 한마음 돌리면 '살자'

안성 묵언마을, 자살방지 캠페인·예방 프로그램 개발도



선지식을 찾아서 ▶14 고우 스님



제2기 준중교구장 ▶5 자강 스님

도반의 향기 ▶9 최복천

근래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7만여 명에 이르며,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3조원을 넘어하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자살사건과 관련, 태고종 안성 묵언마을(주지 지개야)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자살방지 캠페인에 나선다.

인터넷 다음카페(cafe.daum.net/anrdsjsakdm)로도 활동하고 있는 묵언마을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6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자살영가 천도재도 봉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50여 명을 자살의 위기에서 구해낸 묵언마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묵언마을 주지 지개야 스님은 "더

이상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며 사회·종교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대안 마련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

살예방 활동을 통해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고민해 '자살'을 '살자'로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31)6723-108 김성우 기자

#지개야 스님이 말하는 '자살방지를 위한 10가지 자기 암시'

- ①산 밑에 거미줄 처지 않는다
- ②주어진 환경을 뛰어 넘어서라
- ③주어진 고민에 빠지지 말고, 그 고민 자체를 즐겨라
- ④최후의 심판은 시간이다
- ⑤빛을 갔으라고 목을 조르는 사제업자에게도 기죽지 말라
- ⑥마음먹기에 따라 극락이 되고 지옥이 된다
- ⑦쥐뿍에 갇힌 쥐가 되지 말고 쥐뿍을 관찰하는 제3자가 되라
- ⑧고통과 실패가 없는 성공은 상상누각이다
- ⑨부끄럼과 창피는 기준이 없다
- ⑩세상의 주인공은 자신이며 나머지는 나를 위한 엑스트라다.

사회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Dream 꿈 드림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현대불교신문사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드림'을 전개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09년 5월 13일 ~ 8월 3개월간
- 모 금 액 :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용문사 운장대 운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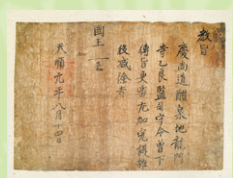


운장대(보물 제68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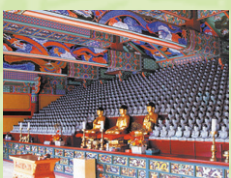
용문사 전경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화상 및 목각불(보물 제98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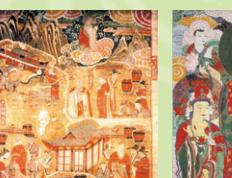
용문사 만물봉사



성보박물관



팔상탱(보물 제1330호)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465호)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운장대를 둘러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각인 운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목각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운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한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들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운장대를 둘러서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양하는 공덕 쌓으시고, 운장대를 둘러서서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용문사 오시는 길

-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 (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 I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 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 IC



삼사순례도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책임 청안 합장

-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 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 차량 주차 가능